



정읍시 도시재생 '신년 음악회' 성황리 열려

정읍시는 지난 28일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시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2023 계묘년 신년 음악회(이하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음악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로 무대를 구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고 정읍시민들에게 새 희망과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착순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정읍 출신의 예술가 황예진 피아니스트와 황예찬 바이올리니스트, 박세린 트리오(첼로 박세린, 바이올린 유중훈, 피아노 강정금)가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또 정읍 출신 예술가들을 홍보할 삼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정일중학교 안다영 학생과 정읍중학교 고동현 학생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익숙한 정동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재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앞으로 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정철 민주평등 장수 자문위원, 대통령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노정철 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하는 의장(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노정철 자문위원이 2022년 의장표창(대통령)을 수상했다.



노정철 자문위원은 제19~20기 자문위원과 평화법에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내 통일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노정철 자문위원은 이번 의장표창은 지역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주신 만큼 자문위원 역할에 더 충실히 임하겠으며,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꾸준한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평화통일정책 자문,건의 등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우협회 장수군지부 지부장 이·취임식 개최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 제10·11대 지부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장수 하나마트 웹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장, 군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한우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내빈소개,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내빈축사, 집행부 소개,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년간 한우 산업 발전에 헌신한 채수권 이임 지부장은 이임사에서 "재임 기간 도움을 주신 임원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다음 집행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로이 취임하는 제11대 이상식 지부장은 "전 지부장님 및 집행부께서 지난 임기 동안 장계 가족시장 스마트 경매시스템 및 조사료 유통센터 구축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우협회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역대 최대 한우 사육마릿수로 인한 공급 과잉, 사료 가격 폭등, 고구리·고물가로 인한 경영 불안 등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신임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단합해 장수한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시민 중심 전주 관광 '성과 공유'

'2022 전주여행학교' 117명 시민들 참여·4종 여행상품 개발 등 성과 거둬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해 전주관광 브랜드를 확장 시킨 성과를 공유했다.

시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7일 전주시의회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송영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장과 전주시 관계자, 전주여행학교 졸업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중심의 지역관광 육성'과 '전주여행가 배출'을 목표로 추진한 '2022년 전주여행학교'의 최종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전주여행학교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만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전주의 숨은 명소를 여행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을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 주체의 전주관광거점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관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먼저 '글로벌 관광도시에서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송영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전주 관광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2022년 전주여행학교 성과보고'와 전주여행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전주여행학교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전주 관광 발전에 대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눈으로 다시 보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전주여행학교를 꾸준히 운영해왔다.

지난해 운영된 4기수(입문반)의 전주여행학교에는 117명의 시민이 참여해 허허동동~같이놀이-반려동물과 떠나는 전주한복여행'을 비롯한 4종의 여행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김태태 기자



제9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공식 출범

제9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원)이 지난 27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은 정읍시의회 의장,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석형정 위원장, 전주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공주석 위원장,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창훈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은 내빈소개에 이어 공로패 수여, 출범사 축사, 연대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3년간 조합원의 후생 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김상수 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대원 위원장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며, 특히,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감질 문화를 근절하고 조합원들의 화합과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정 발전을 위해 노사 간 상생의 바탕 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항상 귀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취임식 개최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 이·취임식이 27일 행복누리센터 3층 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 신정희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전라북도 시군 센터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삼순 전 센터장의 자원봉사활동을 담은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이임사, 이 기자 신임 센터장의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이 기자 센터장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적십자 봉사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대한적십자사회 순창지구협의회장,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전북제철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운영 위원장 등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이 기자 센터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김삼순 센터장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확산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봉사의 따뜻



함을 전해 순창군 곳곳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노력해오신 김삼순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로가디스 익산점, 나눔 동참 착한 가게 현판 전달

익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세광, 이지원)는 지난 27일 로가디스 익산점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중앙동 소재 남성 의류 전문 매장인 로가디스 익산점은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 다양한 연령층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올해 첫 중앙동 착한 가게로 등록됐다.

장일영 로가디스 익산점 대표는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항상 생각해왔는데, 올해 시작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한 해가 될 거 같다"며 "우리 이웃의 가게들이 함께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부 문화가 확산 되는데 앞장하겠다"고 말했다.

강세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에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복지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 금구면·홈플러스 김제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규)과 홈플러스 김제점 나누미봉사단(단장 김지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이 협력하여 지난 27일 계묘년 새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연탄 나눔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홈플러스 나누미봉사단에서 연탄 1,000장 후원하여 금구면 난방 소외계층 4세대에게 지원하였다.

특히 봉사단원들과 길보른복지관 직원들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소외계층에 웃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추운 겨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해주었다.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권영세 관장은 "연탄은 서민들의 대표적 난방 연료이지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많다"며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고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일규 금구면장은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한 홈플러스 김제점 나누미봉사단과 길보른복지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지훈 제63대 순창군 4H연합회장 취임

순창군4H 연합회는 27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 및 내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활동했던 제62대 오재훈 회장이 이임하고 김지훈 회장이 제6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새롭게 취임한 김지훈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4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순창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순창군4H연합회는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회원 모집, 역량강화 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덕·노·체 4H 이념을 몸소 실천하는 농업발전의 후계세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 대학생 행정인턴과 대화의 시간 가져

진안군(전춘성 군수)은 27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대학생 행정인턴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한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1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인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행정인턴으로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험해보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학생 행정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자립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진안은 물론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산들강용포농촌체험휴양마을, 성금 100만원 기탁

산들강용포대표 박종관은 지난 27일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된 성금은 산들강용포마을에서 농촌관광 수입으로 마련되었으며, 형편이 어려운 지역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관 대표는 지난 한해동안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체험·숙박시설 수익금 일부를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성금을 하게 되었다"며 "후원해드린 성금으로 생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을 찾는 소비자요구에 부응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들강용포마을은 펜데믹 시대에 불구하고 2022년 농촌관광객 10,000여명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인 블루베리를 활용한 허프·인절미·케익민들기 체험 등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는 산들강용포마을의 특별한 체험을 개발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한편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소외계층을 위해 성금을 지원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기부하신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